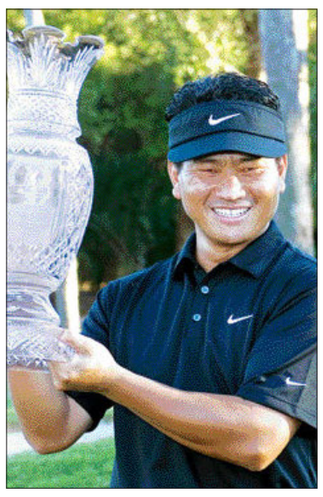
산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제1758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31일 (음력 9월 10일) 화요일



최경주가 30일 끝난 PGA 크라이슬러챔피어십 골프대회에서 우승 한 후 우승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통산 4승

PGA 크라이슬러 챔피언십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시즌 막판에 극적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관련기사 22면〉

최경주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의 웨스틴 이니스브룩 골프장(파71·7천29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정상에 올랐다.

시즌 첫 우승이자 통산 4승을 거둔 최경주는 상금 95만4천 달러를 받아 상금 랭킹 26위(226만7천348달러)로 껑충 뛰었다.

최경주는 시즌 최종전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했고, 내년 시즌 개막전으로 전년도 투어대회 우승자만 초청되는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에도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출전권도 확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정치권 '빅뱅' 시작됐다

與, 신당론 확산… 親盧측과 균열
고건씨 내달 2일 신당 참여 선언
韓대표 수도권 與의원 잇단 접촉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10.25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 내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고건 전 총리가 내달 2일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열린우리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계개편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0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는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정계개편 논의를 비대위 중심으로 질서있게 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통합신당파는 비대위의 정계개편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통합수임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선 반면, 친노(親盧) 그룹은 '노사모'의 재결집 등 '당 사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는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간의 충돌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방향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지역구에서 강한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호남출신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통합신당론'을 정면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 통합론자인 염동연 의원(광주 서 갑)은 최근 당내 통합파 의원 30여명에게 '민주세력의 재결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는 한편, 다음달 초 '민주개혁세력 통합을 위한 모임' 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건 전 총리도 다음달 2일 청주에서 열리는 '미래와 경제' 세미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 전 총리의 측근인 김덕봉 전 공보수석은 "고 전 총리는 중도·실용세력의 대통합을 전제로 한 신당 창당에 뜻을 두고 있었다"며 "오는 2일 청주에서 열리는 세미나 이후 고 전 총리가 신당 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전 총리와 긴밀한 관계인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고 전 총리가 오는 2일 '중도·실용세력이 주축이 된 신당이 창당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총리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들과의 활발한 물밑 접촉을 통해 신당이 창당된다면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열린우리당 수도권 의원들과의 개별적인 연쇄접촉에 나서며 정계개편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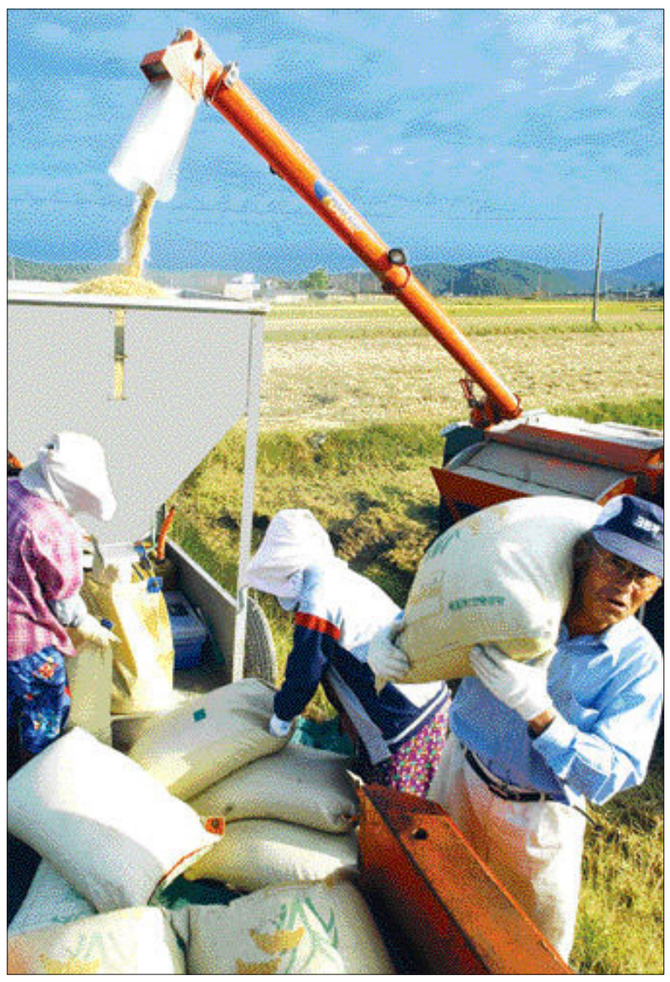
한 대표는 열린우리당 수도권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정계개편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제3지대에 모여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해체 및 탈당 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식 의원은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을 위해 나는 고 전 총리를, 최인기 의원은 국민중심당을, 김효석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을 맡고 이낙연 의원이 총괄을 하는 식으로 정당·인물별 전담 마크맨도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일정상 한 대표는 거의 매일 열린우리당 수도권 의원들과 접촉할 예정"이라며 "열린우리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정계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 빅뱅 관련 주요 일정

10월 29일	열린우리당 비대위, 통합신당파 "통합수임기구 구성"·친노 계열 "당 사수" 주장
11월 2일	고건 전 국무총리 '미래와 경제' 세미나에서 신당 참여 등 중대 결심 발표 예정
11월 2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 격론 예정
11월 초	민주당 한화갑 대표 열린우리당 수도권 의원 연쇄 접촉 예정
11월 초	열린우리당 통합파 염동연 의원 '민주개혁세력 통합을 위한 모임' 가동 예정



막바지 추수 수확의 기쁨으로 넘쳐나던 황금 들녘에도 휴식의 적막이 찾아오고 있다. 막바지 추수가 한창인 30일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들에서 농민들이 마지막으로 탈곡한 벼를 경운기에 싣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 靑·통일부와 갈등 탓"

내부 알력도 한 원인… 金원장 외압설 부인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 이면에는 대북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정원과 청와대·통일부 간의 대립, 여기에 국정원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여권 핵심관계자는 30일 "국정원 인사를 놓고 김 원장과 일부 고위 간부의 알력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인사문제로 국정원 핵심들간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김 원장측 한 인사도 이날 "국정원 내 일부 간부들이 '원장이 무능하다'는 말을 흘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내 일부 간부들이 여권 내 386인사 등 핵심 세력과 교감하며 김 원장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김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원장이 '일부 인사들이 (국정원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들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30일 보도했다. 국정원 내부인으로 후임 원장으로 거명되는 인사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386 간첩단' 수사, 북 핵무기 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청와대·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김 원장이 사퇴 결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원장의 사의 표명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김 국정원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외부 압력설은)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이날 국정원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혼돈의 北核… 우리의 선택은
김동신 前국방장관 특별 인터뷰 ▶5면

386연루자 광범위 수사

5개 재야단체 간부 北 공작원 접촉 의혹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이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그가 조직한 '일심회' 조직원,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 인사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의 범위가 386 운동권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30일 "장씨를 비롯해 구속된 5명의 일심회 조직원들은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으며, 경찰도 (이와는 별도로 다른 대공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일심회 조직원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과 별도로 경찰은 5개 재야단체 간부들이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북측 인사들을 만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안 당국은 또 장씨의 '조국통일상' 수상 여부나 방북 경위, 입당 시점 등 석연치 않은 과거 행적도 집중 수사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